

돌아온 건조기 ... 사찰화재 걱정되네 큰 불 대비 아직 '미흡'

소방차 배치 · 매뉴얼 발표 ... 소방도로 등 여전히 부족
예산부족 시설보강 못해 "‘낙산사 악몽’ 재발 막아야"

보물 제479호 동종을 비롯할 수 많은 문화재와 전각을 잃은 지난해 4월 5일의 양양 낙산사 화재는 불교계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낙산사 화재 이후 사찰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 많은 의견들이 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약'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월과 4월은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과 화재가 발생하는 시기다. '제2의 낙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건조기인 요즘 더욱 커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의 62%가 3, 4월에 집중됐다. 3월 중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입산자의 실수나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 일어난 산불이 59%에 달한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사찰은 언제든지 산불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조계종, 일반 사찰의 대책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사실 낙산사 화재가 발생한 직후 전국 사찰에는 화재 '진압' 바람이 불었다.

조계사를 비롯해 통도사 해인사 봉선사 관촉사 등의 고찰들은 소방차를 구입해 경내에 배치하거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관심을 모았다.

조계종도 전국 주요 사찰들의 화재대책 현황을 조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32곳 사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소방용수 총원 ▲비효율적인 소화전 재배치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방화수립 조성 ▲방재매뉴얼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산사 화재 직후 방재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역시 화재 직후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언급에 이어 관계기관에서도 각종 현황 자료를 내놓았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은 화재 · 지진 · 산불 등에 대한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을 올해 1월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화재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을 '여기까지'라는 것이다. 대형 참사를 막을 후속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찰들의 화재 대책이 '기본'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조사 결과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를 벌였던 강화지역 전등사, 정수사, 보문사의 경우 소화전 보강과 소화기 추가 배치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 사항인 소방도로 확보와 등산문화재 피난을 위한 조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가 적지 않은 사찰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여전히 소화전이 부족하고 소방도로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총 7억원 규모의 소화

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예산 조달이 어려워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은 법주사의 경우 지난해 소화전과 소화기를 보강하고 화재감시기까지 증설했지만 주변의 나무들이 전각과 바로 붙어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종단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5월 ▲산불방화를 위한 안전선 및 방화선 확보 ▲재난방재 기본여건 강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재난 대피시설 구축 ▲관련제도 개선 등의 5개항의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올해 주요 사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내년부

터 10여개 사찰에 부분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한다는 정도뿐이다. 조계종은 올해 국보와 보물 소유 사찰 30여곳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재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상준 문화유산팀장은 "정부기관과 방재 시설들을 어떤 사찰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조율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지난 2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전법이 사찰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희망'적이다.

일본 사찰의 경우 담장벽화로 유명한 호류지 화재사건(1940년)을 계기로 모든 사찰의 전기시설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보급 문화재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찰들이 목조건물의 지붕과 주변으로 분수를 발생시키는 수막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재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낙산사 주지 정명 스님은 "수십년 전에 설치돼 열악할 수밖에 없는 전각들의 전기 배선을 비롯한 기초사항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수 기자 yjc@buddhapia.com

"초발심으로 돌아가 가행정진 할 것"

초우 스님 방장 추대 고사

지난해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던 조계종 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방장직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우 스님은 3월 7일 작성한 글을 통해 "산승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우리 조계종단의 종정예하, 총무원장 스님, 원로대덕 법우, 종도 여러분에게 본인의 문제로 심려 끼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초발심의 수행납자로 돌아가 출사사원의 본분을 참구하듯 가행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도사 주지대행 현문 스님이 3월 9일 공개했다.

초우 스님은 "발표한 글의 내용이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며 "나머지는 주지스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수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향원사 천불선원 선덕 대웅 스님



시방세계 9면
승탑 20년차 스님들 연수현장

운덕 스님 '26년' 업적 8면
불자CEO 경영철학 10면



3월 9일 종성문고 개관기념 테이프 커팅식. 오른쪽부터 동출 · 원소 · 미산 · 청월 · 시몽 · 법현 스님, 박기동 임제선원 신도회장, 이남숙 신수회장. 사진=박재원 기자

월탄 · 정우 스님 등 공권정지 10년

조계종 특별심사위 '98년 징계사 사면' 일단락 ... 현근 스님 제외

정영 스님 문서 견적, 월탄 남현 정우 원학 현소 성문 스님 공권 정지 10년. 현근 스님 동일결정(말뼌).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는)는 3월 9일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회를 열고 지난 1999년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 기소를 통해 말뼌처분을 내린 정영 월탄 남현 정우 원학 현소 현근 성문 스님에 대한 재심결과와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종정, 원로회의 유시 등에 따라 정대 · 법장 스님 등 역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했던 '98년 징계사 사면'이 마침내 기관 스님 집행부에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호법부에 판결내용이 전달 되면 총무원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

무리하게 된다. 6명에게 내려진 공권정지 10년은 1999년부터 소급해 2008년까지로,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처님오신날 정기사면에서 중앙총회의 동의(파반수)를 받아 사면 ·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날 재심회계위원 정명 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은 "중헌 128조(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지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말뼌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무시하고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한 징계사들에 대한 특별법(99년 10월 제정)에 따라 이미 말뼌된 스님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총회에서 중헌을 개정할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회계위원 월서 스님은 심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특별법과 중헌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법규위원회가 이들의 재심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말뼌자는 재심의 자격이 없다는 조항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특별심사위원회에는 재심회계위원, 조심회계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종성문고' 개원 ... 희귀본 · 禪書 등 1만5천권

청운동 본사에 위치, 법현 · 시몽 · 미산 스님 등 참석

서울 대종사의 전법제자인 임제선원 조실 종성(1930~2004) 스님의 유지를 받든 '종성문고'가 현대불교 사육내에서 문을 열었다.

현대불교는 3월 9일 본사 법당 및 종성문고에서 제주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인 미산 스님과 원소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본사 총괄본부장 청월 스님, 박기동 임제선원신도회장과 임제선원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성문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성문고 개원인연 공력으로 종지와 설법이 결하여 통한 조근정안(超群正眼)이 속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본사 대표이사 해월 스님은 청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종성문고 스님께서 불서 기증을 통해 신문사가 경 · 윤 · 룬 삼장사는 물론 다양한 출판물로도 불자들의 신행과 학자들의 학문, 수행자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려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된 종성문고는 2004년 12월 21일 인적한 종성 스님이 열반 3개월을 앞두고 본사에 기증한 불교학, 선학, 동양학관련 1만 5천여 권의 장서로 꾸며져 있다. 종성문고의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도서대출은 당분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열람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2004-8261

관려기사 3면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ia.com



종교초월 봉사활동 릴레이 출발! 충북지역 30여 종교단체가 3월 9일 종교를 초월해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는 '종교자원봉사 릴레이' 발대식을 가졌다. 3월부터 11월까지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단체들이 봉사단체 방문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불교계에서는 육천 대성사와 미륵사 용화사 등이 동참해 반천나누기, 목욕봉사 등 자비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월 대전 총부지사장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www.bexpo.org 무료입장

불교 문화와 불교산업의 특별한 만남, 2006한국불교박람회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6 한국불교박람회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총 집결될 이번 행사를 통해 이 시대 한국불교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21세기 미래문명의 대안으로써 불교를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시품목 : 사찰건축, 침단포교, 장례문화, 불교용품, 전통차, 종단 및 교육, 불교유행관, 특별공연 및 부대행사

전시기간 3월 23일(목) ~ 26일(일)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장소 서울무역전시장(SETEC)
문의 TEL.(02)736-0993

주최: BBS불교방송, (주)j.convention 주관: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